



전환되는 쌀산업

적정농지확보, 농기계보급, RPC계획 수행, 생산기반 정비, 첨단기술개발, 민간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등 환경변화 적응 가능한 시책 개발해야

풍요뒤에 찾아온 무영의 허전함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9월 15일 현재 금년도 쌀수확 예상량은 3천7백16만섬으로써 사상 최대의 대풍작이 예상된다. 작년 수확량 3천6백96만섬(1섬 144kg) 보다 20만섬이, 올생산목표인 3천3백80만섬보다 3백36만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변화에 가슴 술렁이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금년도 쌀예상 수확량을 초과 달성한 이유로 벼재배면적 확보, 단위수량 증가, 생육기간중 기상여건의 호조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금년도 벼재배면적은 6백5만ha를 확보함으로써 매년

2만9천ha의 논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였다.

아울러 쌀예상수확량을 단보(3백평)당으로 보아도 5백9kg으로써 작년의 5백7kg보다 높다. 이것은 미국(4백94kg), 일본(4백88kg)보다도 많아 효율적인 농지이용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확량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가지 이유는 다수확품종인 다산벼와 남청벼 등이 57%정도로 보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금년도의 쌀자급률(가공용 포함)은 지난해 89.5%에서 105.6%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사상최대치인 106.3%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도 잊지않고 찾아온 벼멸구나

티나, 커크 등 자연재해와 싸우면서도 사상 최대의 풍작을 이룬 풍성함에 비해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인한 보조금 삭감,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의 제약성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기대는 풍년속에서도 무상의 허전함이 있다.

품질별·지역별 가격차별화 정착되

그동안 정부는 경쟁력이 약한 쌀산업을 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쌀산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단계 대책을 추진하였다. 1단계 대책으로는 양정제도개혁으로 양곡의 민간유통기

능 활성화, 농업기계화 추진,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농지제도 개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확대를 들 수 있다.

2단계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으로는 농지전용 억제, 약정수매제 실시, 직접지불제 실시, 단위수량 제고대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또 쌀값이 품질에 따라 차별화되어 품질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농가의 판로도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지 유통체계가 다원화되어 직거래와 시장유통이 보완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포장, 규격화, 브랜드화된 상품이 출하되어 지역특산품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유통질서가 정착되고 있다.

쌀농사의 작업과정도 기계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기계화 보급률이 97%에 이르며 작목반 또는 위탁영농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영세한 영농형태도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쌀재배농가수도 1백20만3천호로 감소되고 있으며 3ha이상의 농가수도 3만3천6백호에 이르러 어느정도 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95년말 현재 벼농사 전문법인수는 2천4백55개소, 농업회사법인수는 1천1백79개소에 이른다. 소규모 농가는 작목반과 농기계 공동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쌀의 상품화와 품질별 차별화는 크게 급진전되고 양질미와 다수성 품종 보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품질에 따른 쌀값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일반미는 가마당(80kg)가격이 15만~16만원인데 비해 품질인증쌀은 19만~20만원, 흑미는 48만원으로써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차도 크다.

원가절감 통한 농민부담 경감해야

일부 쌀재배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규모 전업경영체나 RPC를 중심으로한 계약재배, 미질개선은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있다.

그러나 쌀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시련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계속되는 국제식량위기, WTO체제하의 시장개방과 2004년의 시장개방 확대, 보조금 감축논의, 기후조건 불안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쌀농사 규모의 영세성과 타작목 전환의 제약, 고령농가의 증대와 노동력 제한, 농지전환에 따른 재배지 확보문제 등으로 생산여건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양질미 선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쌀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권원달
충북대학교 교수

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쌀산업을 육성하려면 꾸준한 정부의 시책개발과 농민의 적극적인 영농활동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는 적정농지확보, 적절한 농기계 보급, RPC의 계획수행, 생산기반정비, 첨단기술개발, 민간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등 식량정책의 확고한 목표설정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양질미의 생산과 수확후의 건조, 도정, 포장 등 상품성 향상과 미질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규모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재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각종 자재산업도 원가절감을 통해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쌀산업은 정부, 농민, 관련산업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농약정보**